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기호음성학적 일고찰*

이산호**, 김휘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Abstract

A Semio-Phonetic Stud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Lee, San-Ho, Kim, Hui-Teak

Our research is at the most basic stage for natural voice communic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phonology and emotions or the meaning of the text does not reveal the reality. Multidisciplinary tasks are required in this regard. Convergent collaboration from phonetics, phonology, linguistics, psychology, to data science, will play a crucial role in reinforcing the phonetic aspects of human reality. Convergent collaboration from phonetics, phonology, linguistics, psychology, to data science, will play a crucial role in reinforcing the phonetic aspects of virtual reality that humans experience. With this perception, we first reviewed a situation in which phonological studies were excluded in terms of meaning. And the reason was found in André Martinet's theory, 'Double articulation'. We tried to explain theoretically that research on the direct relationship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교수/ E-mail: sanho@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부교수/ E-mail: nausse@naver.com

- DOI: <http://dx.doi.org/10.15755/jfs.2019.50.347>

between phonology and meaning is possible. For this study, we borrowed part of Benveniste's thesis, "Sémiologie de la langue" and the Prosody theory of Meschonnic. What we have noted in these studies is tha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eaning of texts and works are not just at the stage of the signified of a sign. Meschonnic concludes that "Signifier creates meaning everywhere, that is, 'signifiante' produced by the signifier." And poetics already show that research on this continues. However,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not only on qualitative research on phonology but also on quantitative research on whole phonology and meaning.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ignifier, Signified, Prosody

주제어: 인공지능, 의사소통, 기표, 기의, 프로소디

I. 서론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지 소프트웨어에서 나아가 스마트 폰의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인간형 로봇 등의 형태로 그 성공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소통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기술은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소통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도 활발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소통에 대한 인문학적인 한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경험은 대부분 언어 행위를 통해 전달, 확산한다. 감정 역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의사소통 시 감정과 관련된 사항은 대화 상황에 있거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감정은 인간의 경험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단지 순간의 상황 속에서 언어 사용의 전략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 전달과 관련하여 인간이 언어(*langue*) 내에 쌓아 온 자산이 있을 것이다. 그 자산은 언어의 각 층위에서 나타난다. 이중분절(*double articulation*)(Martinet, 1970, pp. 13-15)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문장에서, 단소(*monème*)로, 단소에서 음소(*phonème*)로 차례로 분절될 수 있다. 이 문장과 단소, 음소가 언어의 세 층위를 이룬다.

이중 본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층위는 바로 '음소'이다.

음소는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자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블룸필드(L. Bloomfield)의 구상에 비추어보면 한 언어의 음소들은 음성이 아니며, 다만 "발화자들이 현재의 발화 음성에서 산출하고 식별하도록 훈련받은 음성자질들"과 한꺼번에 뭉뚱그려진 음성자질들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교통신호가 전자신호등, 램프, 깃발 또는 그 무엇이든 실제의 신호들과 별도의 물체로부터 격리된 '빨간 속성'이 없더라도 [그것을] 빨간색 교통신호 [로 간주하고 그] 앞에서 멈추도록 훈련받은 운전 교습자의 상황과 엇비슷하다."¹⁾ 즉, 음소는 추상화된 도구이며, 실질을 분절하는 자질일 뿐이다. 이러한 음성과 음소의 확고한 구분은 음소의 대립 구조 혹은 음소의 실현 방식들이 감정의 연구와 관계가 없다는 논의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하지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때, 음소를 음성과 무관한 도구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²⁾ 우리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본 논문은 음소 연구에 있어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고찰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그간의 음운론 연구들을 일별하고, 선행연구들이 어떻게 음운론 연구를 감정과 연결하였는지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밝혀줄 것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소통에 관한 연구의 시작점을 살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궁극적 목적은 본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본론의 서두에서는 음운론 연구가 감정의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보도록 하자.

II. 이중분절과 음소: 의미와의 분리

랑그(langue)는 소쉬르에 의해 '진정하고 유일한(véritable et unique)' 언어학의 대상이 되었다. 소쉬르는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랑그를 '기호들의 체계(système de signes)'로 정의하고, 기호들이 랑그를 구성하는 방식과 랑그의 위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언어학은 소쉬르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분화되었고, 더 섬세하게 발전해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과 앙드레 마르티네(André Martinet)이다. 특히 마르티네는 이중분절(double articulation)을 제기하고, 랑그를 1차 분절 단위를 단소(單所, monème) 2차 분절 단위를 음소

(音素, *phonème*)로 지정하였다. 음소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요소로 규정된다. 그리고 의미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음소의 조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음소는 기표(*signifiant*)로서 모호할 수 없다. 랑그에는 차이만 있기 때문이다.³⁾ 마르티네(*Martinet*, 1970, p. 16)의 음소에 대한 정의를 보자.

어떤 다른 기호와 같이 단소도 두 가지 면을 가진 단위인데, 하나는 기의(*signifié*) 면, 즉 의미·가치이며, 또 하나는 음성형태로 나타나는 기표(*signifiant*) 면으로서 이것은 이차 분절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차 분절 단위를 우리는 음소라고 한다.

음소는 이분법적으로 기표 면에 해당한다. 의미 면, 즉 의미와 관련되어서 음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음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단소부터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의 면과 기표 면을 모두 가진다. 하지만 단소가 단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티네(*Martinet*, 1970, p. 16)는 의미소(*sémantème*)와 형태소(*morphème*)를 구분한다.

travillons 같은 한 낱말에는 두 가지 단소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행동의 유형을 표시하는 *travail-/travaj/*와 또 하나는 말하는 사람과 다른 하나 혹은 몇 사람을 표시하는 *-ons/ō*이다. *travail-* 유형의 단소와 *-ons* 유형의 단소들을 서둘러 구분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의미소'가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는 것과 '형태소'가 형태만 가지리라는 것의 대립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위 언급에서 보면, 단소의 단계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든 의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음소가 결합되어 랑그 안에서 의미 차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만, 그 결합은 단소로서 규정된다. 단소는 단순히 단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층위로서 음소와 단소와의 차이는 '의미'이다. 다음 방브니스트(*Benveniste*, 1966, p. 122)의 언급을 살펴보자.

그러하여 사실상 *의미*는 어느 층위에 속하는 단위건 그 단위가 언어적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이다. 분명 모든 층위에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음소는 언어기호를 식별해 주는 점에서만 가치를 지니며, 또한 변별자질은 나름대로 음소의 식별 표지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언어는 이와 달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위의 연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작이 모

두 한결같이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소는 내재적인 의미, 즉 기의를 갖지 못한다. 여기서 식별이란, 위에서 언급한 차이를 의미한다. 위 언급을 보면, 랑그 내부에는 식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별에 대립하는 용어가 바로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방브니스트는 기호학적 방식은 인지되어야(reconnu) 하며, 의미론적 방식은 이해되어야(compris)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인식은 "선행 사실과 현재 사실의 동일성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이해는 "발화행위의 의미작용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구분은 랑그와 담화 차원을 구분한 것으로, 음소는 결국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와의 단절이 층위와 관계된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엘름슬레우의 기호소(figures)⁴⁾는 기표와 기의의 층위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다. 엘름슬레우의 이른바 기호소 이론은 소쉬르가 랑그를 기호들의 체계로 본 것에서 더 분석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이중분절을 도입해야 한다. 엘름슬레우는 이중분절 시 2차 분절 단위를 음소뿐만 아니라 음소에 해당하는 의미 측면의 단위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름슬레우는 음소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자체적인 구조가 있다. 즉, "표현과 내용의 형식적인 동일성이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왜 언어 체계에 관한 참다운 연구는 우선 표현과 내용의 양면을 분리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박인철, 2003, p. 84).

엘름슬레우는 랑그의 최소 단위를 기술할 때, 기호가 아니라 기호소와 같은 비기호소를 최소 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글을 보자.

랑그는 단순한 기호들의 체계로 기술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랑그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그 목적성 때문에 우리는 랑그를 기호들의 체계로 생각한다. 그러나 랑그의 내적인 구조에 따르면 랑그란 무엇보다도 기호들의 체계와는 다른 어떤 것, 즉 기호들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소들의 체계이다. 따라서 언어를 기호들의 체계로 정의하는 것은 보다 깊은 관찰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한 정의는 언어의 외적인 기능만을, 랑그와 언어외적인 요소들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 내적인 기능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Hjelmslev, 1971, pp. 63-64, 박인철, 2003, p. 86에서 재인용)

음소는 비기호로서 표현 면의 기호소라고 할 수 있고, 내용 면은 그레마스의 용어이긴 하지만, 의소라는 비기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행위는 '말하고자 하는 것', 즉 뜻을 전달하려는 방편이다. 이중분절과 엘름슬레우의 기호소 이론에서 음소와 의미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음소라는 분절된 소리에 뜻을 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음운론의 운소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음운론은 음소(音素)와 운소(韻素)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소는 억양(intonation)과 관계된다. 음소가 철저히 차이를 통해서 분리된다면, 운소는 예를 들어 중국어의 성조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뜻을 분화시킨다. 강세는 "경계적 기능(fonction démarcative)을 갖는다. 체고어에서 강세는 언제나 단어의 첫음절에 떨어지기 때문에 말의 의미 단위와 새 의미 단위의 경계적 역할을 한다". (이정, 1994, p. 65) 장단도 이 운소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도 단어의 뜻이 장음과 단음의 구분으로 인해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운소는 비교적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운소 역시 의미를 분화하는 데에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랑그 차원의 의미를 음운체계와 함께 논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회로를 찾아, 음운과 의미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음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부분에 대한 서설 격의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목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음운 차원에서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단지 의미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소통 기제를 찾고, 말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첨단 기술이었다면, 감정을 읽거나 전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미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감정의 공유나 전달이 가능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세계의 기술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2017년 아마존이 이미 음성 패턴으로 "기쁨, 화, 슬픔, 비탄, 두려움, 혐오, 지루함, 스트레스, 그 외 정신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과 정신 상태를 식별하는 특허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자. 이 특허는 특히 전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빈도, 음성 신호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립, 우울 등 각종 질병을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 데이터는 읽는 상대방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에서 감정을 읽어낸다. 더 나아가, 감정과 관련된 질환들을 밝혀내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감정을 나누기 위해 소통하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어차피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감정의 교류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식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간은 다른 곳과 연결하고 있다. 다음 인간관계에 대한 지적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인용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덕분에 부모는 자녀와 쉽게 연결될 수 있고 항상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화상 통화는 세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지속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휴대폰과 태블릿 제작자들은 종종 조부모들이 화상 통화로 손자들과 장거리 통화하는 광고를 내보낸다. 그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확산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단절을 초래했다. 같은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대신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벌어지는 일상이다.⁶⁾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연결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와 관계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여기서 인간의 언어란 음소가 단소가 되고 단소가 문장이 되는 이중분절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법 요소들과 많은 관용어구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야 할 마지막 자질은 감정의 표현이다.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다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아니라도, 우리는 인문학적 방식으로 감정 표현과 관련된 몇 가지 음성학적 방식을 추려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소를 이제 감정과 연결해 고찰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기존의 음소 분석에서 그 단서를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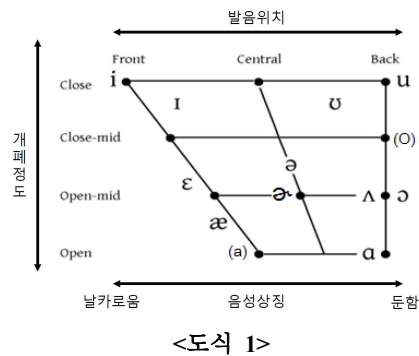
Ⅲ. 음소의 분류: 긴장성과 이완성

의미를 갖지 않고, 결합을 통해 단소를 구성하는 음소는 잘 갖추어진 체계를 구성한다. 로만 야콥슨은 발견된 여러 변별 자질(*traits distinctifs*)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야콥슨은 소리의 자질(*traits de sonorité*)에서 9가지 속성의 대립과 음조 자질(*traits des tonalités*)에서 두 가지 속성의 대립을 구분해 낸다. 그 대립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중 소리 자질은 다음과 같다: 모음성(*vocalique*)/비모음성(*non-vocalique*), 자음성(*consonantique*)/비자음성(*non-consonantique*), 밀집성(*compact*)/분산성(*diffus*), 긴장성(*tendu*)/이완성(*lâche*), 유성성(*voisé*)/무성성(*non-voisé*), 비강성(*nasal*)/구강성(*oral*), 중단성(*discontinu*)/연속성(*continu*), 소음성(*strident*)/비소음성(*mat*), 억지성(*bloqué*)/비억지성(*non-bloqué*). 다음은 음조 자질이다: 저음조성(*grave*)/고음조성(*aigu*), 상-변음조성(*bémolisé*)/불변음조성(*non-bémolisé*). (Jakobson, 1963, pp. 127-128)

이러한 음소의 분류는 단순히 인상적인 차원이나, 음의 발생 위치, 조음 구조만을 통해 구성된 것은 아니다. 야콥슨 음소 체계를 언어를 습득하는 어린이와 실어증 환자를 통해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서, 변별자질들을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거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각 변별자질의 위치를 규정해 나간다. "어린이의 언어습득에서 음소적 발전은 실어증 환자의 음소적 퇴화와 변별자질 분류에 있어서 유사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Jakobson, 1963, p. 125) 이를 바탕으로 대립하는 두 항을 각각 A, B로 칭하면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의 존재는 A의 존재를 함의하며, 그에 대응하여 어떤 언어의 음소 체계에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B는 그 언어의 음소 체제에 나타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언어에서 B가 존재하는 한, A가 사라질 수 없다." (Jakobson, 1963, p. 125) 이 대립 항들의 관계가 대립적이라 해도, 이 항들은 서로를 배척한다기보다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계를 의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중간 항에 제3의 음소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점진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긴장성과 이완성의 대립에 주목한다. 이 대립은 야콥슨 저서 『일반언어학 시론(*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의 2부 「음성학과 음운론(*Phonologie et phonétique*)」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대립들이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라는 음의 생성과 관련을 맺는다면, 긴장성과 이

완성의 대립은 발성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발화행위, 인공지능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다음 도식을 보자. (Delas, 1990, pp. 72-73 참조)



<도식 1>은 모음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4각형은 혀의 모양에서 따온 것이다. 개폐 정도는 입의 열리는 크기를 말한다. 이러한 이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을 종합한 발성과 관련된 것이다. <도식1>을 통해서 나온 발음은 실제 발화행위에서 소리로 나타난다. 들라스는 여기에 날카로움과 둔함이라는 대립을 추가하는데, 전설 모음들은 날카로운 느낌을, 후설 모음은 둔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다. 들라스는 다음 표와 같이 소리의 질과 양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다. 여기서도 긴장성과 이완성과 관련된 대립을 살펴볼 수 있다.

높이(주파수) 둔함/날카로움	무성음	강도(진폭) 강/약	유성음	높이(주파수) 둔함/날카로움	폐쇄음
가변적	[k]	+ 강 -	[g]	가변적	
둔함	[p]	+ 중간 -	[b]	둔함	
날카로움	[t]	+ 약 -	[d]	날카로움	마찰음
매우 날카로움	[s]	+ 강 -	[z]	매우 날카로움	
날카로움	[ʃ]	+ 강 -	[ʒ]	날카로움	
가변적 (다소둔함)	[f]	+ 약 -	[v]	가변적 (다소 둔함)	

<도식 2>

위 도식에서 특히 폐쇄음의 부분에서 무성음은 긴장성을 나타내는 자음들이다. 우리나라 자음체계 연구에서는 평음, 격음, 경음의 분류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격음과 경음은 긴장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긴장성의 정도는 발음의 강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음소들이 발화행위 상에서 날카로움, 둔함 등의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시어처럼 반복에서 발생하는 운율의 형태에서 사용된다면, 시의 전체적인 느낌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음소의 의미상 역할에 관한 가능성: 담화, 텍스트, 작품의 기호학

앞서 본 연구의 논의는 이중분절부터 시작하였다. 마르티네는 이중분절을 통해 음소와 단소의 차이를 의미의 차이로 보면서 음소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랑그라는 닫힌 체계에서 벗어난다면, 랑그의 한 층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소들은 곧바로 파롤의 세계, 즉 발화행위의 세계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방브니스트의 논의를 주목하자. 방브니스트는 이를 "또 다른 세계, 담화(discours)로 표현되는 세계로 들어간다"고 언급한다. 이때, 의미 포착은 그것이 해석이든, 의미 부여든 랑그 단계처럼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브니스트는 논문 「랑그의 기호학(Sémiologie de la langue)」에서 기호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속성"을 '시니피앙스(signifiante)'(Benveniste, 1974, p. 51)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속성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작가가 작품에 표현해 놓은 시니피앙스, 두 번째는 고립된 상태에서 기본 요소들에 의해 표현되는 시니피앙스이다. 첫 번째 시니피앙스는 그 체계에서 유효한 관계들, 후자는 기호들 자체에 들어 있는 의미성을 통해 밝혀진다. 후자는 언어 기호를 말하는 것이다.(Benveniste, 1974, p. 59)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자체로 의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술 작품의 구성단위들은 매번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단위들의 수가 무한하고, 성질상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각 작품에 대해 매

번 이들을 재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언어의 의미성은 의미성 자체인데, 그것은 언어가 모든 교환의 의사소통, 나아가 모든 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이다."(Benveniste, 1974, pp. 59-60)

「랑그의 기호학」에서는 음악, 회화 모든 분야를 기호 체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기호 체계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어 기호와 다른 방식의 시니피앙스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음악, 회화, 예술의 기호 체계들이 모두 담화⁸⁾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목할 점은 랑그의 시니피앙스와 담화의 시니피앙스가 서로 다른 의미 기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담화의 시니피앙스에 대해 방브니스트의 언급을 보자.

의미론적 방식과 더불어 우리는 **담화**가 생성하는 특수한 시니피앙스의 방식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메시지의 산출자로서 랑그가 갖는 기능이다. 그런데 메시지는 별개로 확인되는 단위들의 연속체로 환원되지 않는다. 기호들의 합산이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개념화된 의미(의도)가 특정 기호, 즉 단어로 실현되고 구분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의미론적 방식은 반드시 지시대상(*referent*)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반면, 기호학적 방식은 원칙상 모든 지시와 차단되고, 독립되어 있다. 의미적 차원은 발화 행위의 세계와 담화의 우주와 동일시 된다. (Benveniste, 1974, p.64)

즉 담화의 시니피앙스는 "전체적으로 개념화된 의미"에 관계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산출된 그 자체로 가지는 개별적인 시니피앙스가 문제시되어야 한다. 언어 행위에서는, 발화체(*énoncé*), 담화, 텍스트,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 미술 작품 자체가 관계된다. 특히 언어 행위에서는 랑그 차원의 의미작용은 제한되어야 하고, 담화의 시니피앙스가 별개로 규정되어야 한다.⁹⁾ 따라서 담화 차원에서 음소의 작용은 새롭게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이제 음소는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구성소의 역할만 하는 랑그의 최하위 단계가 아니다. 담화는 위에서 보았듯이, 그 개념 속에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나아가 작품이나 텍스트까지를 아우른다. 어떤 담화이든 이제 그 정확한 의미는 의미 없는 음소부터, 랑그 차원에서 가장 완결된 의미를 이루는 문장까지 고려함으로써 확실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확실해진 의미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발화 행위로 만들어진 담화는 매번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는 그 담화와 접하는 상황이나 주체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소쉬르의 연구는 인간 언어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 이로써 완결된 연구는 그 자체로 족하지 않았다. 소쉬르는 스스로도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호의 삶'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다. (Saussure, 1916, p. 33) 기호는 발화행위를 통해서 랑그라는 체계 밖, 즉 사회 속에서 위치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방브니스트는 기호의 개념을 확대하여, 작품, 텍스트의 초언어학적 분석을 제기했다. 더 주목할 것은, 방브니스트는 '2세대의 기호학(Sémiologie de "deuxième génération")'을 주창했다는 점이다. (Benveniste, 1974, p.66) 이 2세대의 기호학은 기존 랑그의 층위를 통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기호학이다. 실제로 기호학이 추구하는 대상은 '기호'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인 의미 연구의 확립'이다. 다음 박인철(2003, p.113)의 언급을 보자.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은 1960년대 초 의미론이 적절한 상위 언어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유한 대상을 정의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현대 논리학을 원용하여 방법론적인 면과 인식론적인 면에서 의미론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고, 아울러 기술적(記述的)인 면에서 엄밀한 상위 언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론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레마스가 이 책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과학적인 의미 연구의 확립이었다.

그레마스는 『구조의미론』이 이 '과학적인 의미 연구의 확립'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2세대 기호학의 대상인 텍스트와 작품이 어떤 한 방법론으로 완벽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호학도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면서 기호, 담론, 작품,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레마스의 언급을 보자.

하나의 자연 언어가 포함하는 의미 세계는 이 언어를 말하는 공동체의 문화와 같은 외연을 가진다는 명백한 사실, 그리고 의미론이 시니피에(signifié)의 존재 양식 및 그 형태의 산출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좌처럼 체계적으로 조직된 이러한 형태들을 빈틈없이 기술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Greimas, 1976, p. 5; 박인철, 2003, p. 114에서 재인용)

바르트는 이 의미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화론을 바탕으로 한 전기 기호학을 이른바, 의미의 무결정성까지 논하는 후기 기호학으로 발전시켜 갔

다. 그레마스도, 행동의 기호학, 담화의 기호학, 정념의 기호학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론을 확장, 심화시켜 갔으며, 그를 따르는 후학들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하나의 고정된 방법론이 담화의 의미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의미의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방법론마다,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방브니스트의 '제2의 기호학'은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다시 실질들과 마주해야 하며, 이들을 분절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랑그의 기호학은 언어 실질을 분절해낸 개별 기호학으로 분류될 뿐이다.

우리는 다음에서, 메쇼닉의 프로조디와 관련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프로조디와 시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소가 텍스트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V. 기표와 시니피앙스

메쇼닉은 랑그의 언어학이 스스로 고립되면서, 언어 행위(langage)가 영역(région)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이 언어학이 불러온 착각이며, 언어 행위는 영역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주체와 사회가 공동의 외연을 가지기 때문이다. 메쇼닉은 이때 기표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호의 형이상학은 기호의 단위를 상정한다. 그리고 기호를 단위로 상정한 다. 기표의 인정된 구성소들은 언어 행위 속에서 단위의 비단위에 이른다. 이 언어 행위에서는 랑그에서 랑그로 이어질 때, 혹은 어휘화에서 문법화로의 관계들로 이어질 때, 변수들의 변수들밖에 없다. [...] 담화 속에서, 주체에서 사회에 이르는 상호적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주체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듯, 통사론, 혹은 어휘론으로부터, 통시론, 공시론, 그리고 층위들에서 시니피앙스의 계속된 변수들과 관계한다. (문장에서 멈춘) 언어학에서 초언어학(translinguistique)으로의 이행도 동일하다. 그리고 언어 행위의 이론에서 시학으로의 이행도 그러하다. 하나의 시는 자신이 고유한 단위이다. 소설도 마찬가지이다. 언어학적 변수는 분리할 수 없이 문화적 변수이다. (Meschonnic, 1975, pp.509-510)

언어 차원의 시니피앙스와 담화 차원의 시니피앙스의 구분이 이 메쇼닉의 언급과 유사한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쇼닉이 '초언어학'을 지적인 시기는 방브니스트가 초언어학을 선언한 시기와 유사하다.¹⁰⁾ 방브니스트의 '텍스트와 작품의 초언어학적 분석', 즉 제 2세대의 기호학은 기존의 랑그의 기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 소설과 같은 작품을 분석한다. 이 새로운 기호학의 윤곽은 기존의 랑그의 층위와 관련된 분석에서 벗어나, 그 전체로 각 작품과 텍스트를 특성에 맞게 다시 분절하면서 드러난다. 이때 분석 전의 텍스트와 작품은 랑그의 언어학이 분절하기 이전의 실질로 돌아간다. 위에서 '하나의 시와 소설은 자신이 고유한 단위가 된다'는 메쇼닉의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랑그의 언어학에서 의미가 없는 변별자질의 층위도 이제 다시 실질로 돌아가 텍스트와 작품을 분석하는 데 고려 대상이 된다.

결국, 음소와 같은 기표가 의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방브니스트에게 있어서 랑그를 뛰어넘는 것은 문장과 관련이 있었다. 문장은 랑그의 가장 큰 단위이고, 랑그에서 가장 완결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르티네가 제시한 이중 분절의 모든 단위들은 이 문장 의미에 기여한다. 하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초언어학적 관점으로 넘어가면, 음소, 단소, 문장의 분절 순서와 층위는 모두 무효화 되고, 이 단위들이 텍스트와 작품의 의미를 활성화하는 데 작용하는 방식이 문제 될 뿐이다. 음소가 의미와 별개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 메쇼닉이 인용한 데리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논의를 진행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기표는 법칙상 기의에 선행할 수 없을 것이며, 더는 기표는 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의미하는 기표(signifiant "signifiant") 더는 어떤 가능한 기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불가능한 공식에서 언급된 사고는 공식을 자신에게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르게 언급되어야 한다. 만약 그 사고가 그 공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자체에 항상 달라붙어 있는, 기호에 관한 생각 자체, 즉 무엇에 대한 기호라는 생각 자체를 의심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호 개념(기표와 기의, 표현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돈된 모든 개념성 전체를 파괴하면서 말이다. (Derrida, 1967, p.32; Meschonnic, 1975, p.514에서 재인용)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기의는 기표에 전제된 것이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고, 종이의 앞, 뒷면과 같이, 한쪽이 분절되면 다른 한쪽도

잘려야 한다. 그에 따라, 『일반언어학 강의』에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성(arbitraire)이 설명되고, 기표의 선적 성질도 제시되었지만, 기의의 성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기표와 기의의 자율성을 제시한 엘름슬레우의 이론은 언어학, 기호학, 나아가 모든 기표와 기의와 관련된 논의들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음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메쇼닉(1975, p.512)은 문화-언어(culture-langue) 차원으로 넘어가면, 기호의 자의성은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간다. 이때 랑그라는 경계는 무의미하다. 형상과 거기에 부여된 의미의 관계는 문화의 역사(histoire de la culture)이다. 문화속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무력화된다. 서로를 전제하지 않는다. 기표는 표현하고, 기의는 의미하는 절대적인 역할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러한 중화작용은, 모든 언어학적 단계들에서, 즉 어조(intonation), 음성학(phonologie), 형태론(morphologie), 통사론(단어들의 질서), 담화의 조직 등에서, 담화와 같이 언어 행위의 대표적인 기능을 함의한다. 그래서 더는 기의에 대립하는 기표는 없다. 구조적, 다중적인 기표signifiant multiple가 있을 뿐이다. 이 기표는 어디서든 의미, 즉 시니피앙스(기표를 통해 산출되는 의미작용)를 만든다. 이 시니피앙스는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중이다. 이 과정은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한 담화의 체계 안에서, 그리고 문맥적 의미작용을 포함하는 상호행위에서 순간적으로 단위-가치를 가질 수 있는, 요소에서도 일어난다. 에크리튀르, 시는 이러한 시니피앙스의 양태들이다. (Meschonnic, 1975, p.512)

위 언급을 통해, 시니피앙스는 의미가 미리 존재하여 기표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로부터 발생하는 것 혹은 기표의 역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미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음소가 직접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에 포함된 어떠한 부분도 음소와 다르지 않다.

VI. 인공지능의 발화행위와 프로조디

인간의 언어 행위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소통에 대한 본능과 욕구는 신체의 모든 기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 발현된

다. 문학작품을 비롯한 여러 장르의 예술 작품이 자기만족을 위한 출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통을 위한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에 사용된 모든 방식은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변별자질들의 의미를 향한 기여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선 유명한 야콥슨의 고양이들 분석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야콥슨은 고양이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¹¹⁾: 1연(1행부터 4행), 2연(5행-8행), 3연과 4연(9행-14행). 이 각 부분의 자음과 모음의 사용은 이 시의 각 부분이 풍기는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첫 번째 부분은 비음이 9개 사용된 데 비해, 세 번째 부분은 22개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 부분이 고양이의 태도가 첫 번째 부분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프랑스어의 유음 /r/과 /l/의 대립에서 /r/이 우세한 부분(7행)은 '어둠(ténébre)', '장송(funébre)'과 같은 시어들과 함께 이 부분의 분위기를 어둡게 느끼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 이렇게 음운의 변화만으로도 고양이의 태도가 부동성에서 수동성, 능동성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Jakobson, Lévi-Strauss, 1962, pp.11-13)

다른 한편으로 김기국의 연구는 야콥슨의 이 연구가 음운이 어휘로, 다시 통사적 구조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김기국의 연구 일부를 보면, 이 시는 "4행의 두 연과 6행(혹은 3행의 두 연)의 한 연에 남성운(대문자)과 여성운(소문자)을 aBBa CddC eeFgFg의 형태로 분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개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두 개의 평운은 계속되지 못하며, 다음으로 만약 두 인접한 시구가 다른 두 개의 운에 속하면 반드시 그 중의 하나는 여성운, 또 하나는 남성운이며(a/C, C/e, g/F), 마지막으로 인접연의 마지막에는 여성운과 남성운이 교차한다는 점(sédentaires/fierté/mystiques)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음운의 작용은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기국은 이 각운들이 명사와 형용사로 연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특성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이러한 야콥슨 연구에 대한 정리는 시의 이해뿐만 아니라, 시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데 음운이 단지 하나의 층위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국, 2008, pp.248-252)

한국의 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다. 장철환은 음가의 반복을 통해 시의 리듬감을 감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정지용의 시 「파알리아」를 음운 차원에서 분석한다.

"함빡 피어난 따알리아./한낮에 함빡 핀 따알리아."에서 각 음절을 구성하는 모음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특정 모음의 반복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ㅏ·ㅓ·ㅣ·ㅕ·ㅓ·ㅓ·ㅓ·ㅣ·ㅓ/ㅏ·ㅓ·ㅕ·ㅓ·ㅓ·ㅣ·ㅓ·ㅓ·ㅣ·ㅓ/에서 보듯, 2연을 구성하는 19음절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3음절이 모음 /ㅓ/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성모음/ㅓ/의 반복에 의해 산출되는 특정한 리듬감을 지각하게 된다. (장철환, 2013, p.82)

장철환의 연구는 음가의 반복이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러한 반복이 독자에게 의도된 리듬감을 준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특정 음운의 반복에 의해 산출되는 음악적 효과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인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용이 음운의 반복에 의해 산출되는 음악적 효과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그가 언어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는 일반적 사실뿐만 아니라 음악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특정 음운에 대해 선호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장철환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따알리아」라는 시에서 정지용은 모음의 반복을 통해 시가 주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선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특히 음운 요소의 경우는 문장이나 어휘보다는 의미 전달에서는 간접적이다. 다만, 작품과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더욱 직접적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보들레르의 「고양이들」에 대한 연구는 음운이 주는 효과가 어휘와 문장이 주는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의사소통은 일회적이지 않다. 지금의 이 소통은 데이터의 교환으로 환원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인간의 데이터는 모두 축적되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¹²⁾ 이 자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의 연구는 질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 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학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논의의 시작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한 것으로 본 연구를 가름하고, 심리학, 데이터 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VI. 결론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 단순히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하며, 인공지능이 해주는 알 수 없는 노동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가 접해야 할 타자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 비서가 그러하고, 자동 응답 시스템 너머에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더 자연스러운 인간과의 소통을 원한다. 광고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도 있다. 이제 인간과의 의사소통과 함께,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자연스러운 인공지능과의 음성적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다. 음운과 감정 혹은 텍스트의 의미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실체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다학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음성학, 음운론, 언어학, 심리학, 데이터 과학에까지 이르는 융복합적 협업은 인간의 접하는 가상현실의 음성학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하에 우선, 음운론적 연구가 의미와 관련해서 배제되었던 상황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앙드레 마르티네의 이중분절에서 찾았다. 음운과 의미의 직접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 연구를 위해, 방브니스트의 논문 「랑그의 기호학」과 메쇼닉의 프로조디 연구의 일부분을 차용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텍스트와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단지 기의의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메쇼닉은 이와 관련하여 "기표는 어디서든 의미, 즉 시니피앙스(기표를 통해 산출되는 의미작용)를 만든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미 시학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일부 음운들에 관한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전체 음운과 의미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물론 아직 인간의 영향력 내에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이다. 알파고(Alpha GO)나 왓슨(Watson)이 보여준 압도적인 인공지능의 능력은 한편으로는 전자계산기가 보여준 혁명, 자동차가 보여준 그 이전의 혁명들과 유사한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능력들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지닌 초능력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초능력으로 인해, 인간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존재가 자신을 능가하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견의 단계가 아니다. 세상은 아직 휴먼의 것이고, 포스트휴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 개연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 1) 로만 야콥슨, 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9, p.21.
- 2) "의미단위들의 분화가 언어의 음성 기능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화 참여자들은 우선 변별자질에 반응하는 방법부터 배운다. 그렇다고 해도 참여자들이 발화 음성의 나머지 모든 현상을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화자는 변별자질 외에도, 발화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그것의 조작을 훈련받았고 언어과 학이 묵과할 수 없는 정보를 함유하는 코드화된 자질의 다른 유형들을 조종한다." 앞의 책, p.22.
- 3)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 말해 주는 것은 결국, 언어에는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차이란 일반적으로 적극적 사항들을 전제하며, 이들 적극적 사항 사이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언어에는 적극적 사항 없이 차이만이 존재한다. 언어가 내포하는 것은 언어 체계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개념이나 소리가 아니라, 단지 언어 체계에서 나온 개념적 차이와 음적 차이일 뿐이다." (Saussure, 1967, p. 166) 강조는 저자.
- 4) figure라는 용어는 박인철의 번역에 따라 기호소로 칭한다.
- 5) <http://www.itworld.co.kr/news/123224#csidx08e564340819930b5f5e3704d65c26f>
- 6) 피터 노와 (2015). 휴먼 3.0: 미래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의 탄생. 서울: 메가스터디, p.166.
- 7) 무한히 생성되고, 한없는 다양성을 가진 문장은 활동 중인 언어 행위의 삶 그 자체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문장과 함께 기호들의 체계로서의 랑그 영역을 떠나, 그리고 우리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랑그의 세계인, 또 다른 세계, 담화discours로 표현되는 세계로 들어간다. (Benveniste, 1966, pp.129-130)
- 8) 방브니스트는 음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이 '담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몇 가지 은유를 이용해서, 작곡한 음악의 연주와 랑그의 발화체 산출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이는 일이 남아있다. 우리는 음악 '담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담화는 '휴지' 혹은 '쉼표'로 분리되는, 즉 인지 가능한 주제(motif)로 표시되는 '악절들(phrases)'로 분석된다." (Benveniste, 1974, p.60)

- 9) 다음 메쇼닉(Henri Meschonnic)의 비판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당하다. "메쇼닉은 기호들의 상이한 체계들을 '동일한 무엇'으로 만드는 작업에 매진하였던 기호학자들에게 비판을 가한다: "기호학은 언어활동을 다루는 학문을 넘어서며 기호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담론이다". 따라서 기호학에 있어서 모든 것은 언어활동이 음악, 회화 등과 마찬가지로 기능한다는 뜻이 전개된다. 결국, 기호학에서는 언어 활동의 특수성이 제거되고 마는데, 그 까닭은 기호학에서는 모든 상징체계가 동일한 단위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것이 코드 변환의 대상으로 변환 뿐이기 때문이다." (부라사, 2007, p.37)
- 10) 메쇼닉의 『기호와 시Le signe et le poème』은 1975년에 출간되었다. 방브니스트가 초언어학을 선언한 「랑그의 기호학」 1969년 논문으로 출간되었다가, 『일반언어학의 제문제』에 1974년에 포함되어 출판된다.
- 11) 이 연구는 보들레르나 아래 제시할 정지용의 시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시 전문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 12) 이 차원에서 게르트 레온하르트(Gerd Leonhard)(2018, p.84)의 다음 언급은 음미해볼 만하다. 디지털화와 모바일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제 모든 것은 미디어화하고(미디어에 기록되고) 정보는 데이터화하고 있다. 가령 이전에는 의사와 대화를 하며 의료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닌 아날로그 형식으로만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정보가 전자 기록 형태로 클라우드에 옮겨지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공유할 때 기술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강력한 해상도의 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 기기로 캡처하고 필터링하고 전송한다.

References

- Martinet, A. (1970). *E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Armand Colin.
- Martinet, A. (1970). *Elemeng de linguistik general*. Pari: Armang Coleng.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Gallimare.
- Bangvnist E. (1966). *Problem de linguistik general* I, Pari, Galimar.
- Benveniste E. (1974).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e.
- Bangvnist E. (1974). *Problem de linguistik general* II, Pari, Galimar.
- Jakobson, R, Hallé, M. (2009).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Roman Jakobseun, Moliseu Halle (2009). *eon-eoui todae*. (Bag-yeoseong yeok). seoul: Munhaggwa Jiseongsa. (wonmunchulpan 1956)
- 박인철 (2003). *파리학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Park, I. C. (2003). *Palihagpau Gihohag*. seoul: Min-Eumsa.
- 이정 (1994). *불어학개론*. 서울: 과학사. Lee, J. (1994). *Buleohaggaelon*. Seoul: Gwahagsa.
- Hjelmslev, L. (1971), *Essais linguistique*, Paris, Minuit. Hjelmslev, L. (1971), *Esse linguistiq*, Pari, Minyi.
- Nowak P. (2015). *휴먼 3.0: 미래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의 탄생* (이유미 역). 서울: 메가스터디. (원문출판 2015). Nowak P. (2015). *Hyumeon 3.0: milae sahoeleul jibaehal saeloun inlyuui tansaeng* (Iyumi yeok). Seoul: Megaseuteodi. (wonmunchulpan 2015)
- Delas, D. (1990). *Guide méthodique pour le poésie*, Paris; Nathan. Delas, D. (1990). *Guid métodik pur le poési*, Pari; Nathan.
- Bourassa, L. (2007). *앙리 메쇼닉: 리듬의 시학을 위하여* (조재룡 역). 서울: 인간사랑. (원문출판 1997). Bourassa, L. (2007). *Angli Mesyonig: Lideum-ui Sihag-eul Wihayeo* (jojaelyong yeog). seoul: ingansalang. (wonmunchulpan 1997).
-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Saussure F. de (1916). *Cour de linguistiq general*. Pari: Peiyo.
- Greimas, A. J. (1976). Entretien sur la sémiotique narrative et textuelle. *Pratiques*,

- 11-12, 5-12. Greimas, A. J. (1976). Antrtian syir la semiotiq narrativ e textuiel. *Pratiq*, 11-12, 5-12.
- Meschonnic, H. (1975). *Le signe et le poème*. Paris: Gallimard. Meschonnic, H. (1975). *Le signe e le poem*. Pari: Galimar.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Derrida, J. (1967). *De la gramatologi*, Pari: Le Edision de Minyi.
- Jakobson R. et Lévi-Strauss C. (1962). « Les Chats » de Charles Baudelaire. *L'Homme*, , 2(1). 5-21. Jakobson R. et Lévi-Strauss C. (1962). « Le Chat » de Charle Bodeler. *L'Ome*, , 2(1). 5-21.
- 김기국 (2008). 시 텍스트의 형식주의, 구조주의, 기호학 분석: 레비-스트로스와 야콥슨의 "Les Chats"와 류시화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4, 243-271. Kim, G. K. (2008). Si Tegseuteuui Hyeongsigjuui, Gujojuui, Gihohag Bunseog: Lebi-seuteuloseuwa Yakobseun-ui "Les Chats"wa Lyusihwau "Geudaega Gyeot-e Iss-eodo Naneun Geudaega Geulibda"leul jungsim-eulo. *Gihohag-Yeongu*, 24, 243-271.
- 장철환 (2013). 정지용 시의 리듬 연구: 음가의 반복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6, 61-96. Jang, C. H. (2013). Jeongjiyong Siui Lideum Yeongu: Eumgaui Banbog-eul Jungsim-Eulo, *Hanguksihag-Yeongu*, 36, 61-96.
- Leonhard G. (2018). *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티*. 서울: 틱움. Leonhard G. (2018). *Sin-i doelyeoneun gisul: wigiui hyumeoniti*. Seoul: Tuium. (wonseochulpan 2016).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19. 11. 13.

심사일자 : 2019. 11. 25. ~ 2019. 12. 08.

게재확정일자 : 2019. 12. 09